

# 특검,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前총리에 15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 말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능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우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주의에 테러...불행한 역사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벌 처해야”

한 전 총리 “계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 결단코 없어” 결백 주장

선고기일 내년 1월 21일 지정...계엄 연루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체적 행위 사실 변경 없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법, 방조법 등이 성립할 수 없고 우두머리, 지휘자,

관여자 등으로만 처벌된다는 학설을 제시하며 방조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선포 시 경제 파탄 및 대외 신인도 악화 등을 우려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해 준 양측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게 된다.

/뉴스시스



## 광산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11월 27일~12월 4일, 구정 주요 업무 전반 점검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서 결과보고서 채택도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산구청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추진된 주요 업무 현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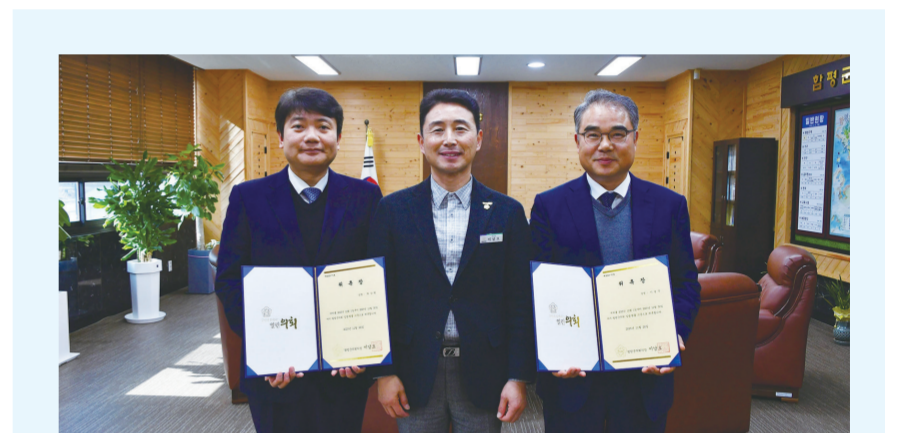
세부 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광산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부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마지막 날 위원회별 결과보고서 채택과 종합 강평을 거쳐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원회별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내달 19일 열리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집행기관에 이송된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시각에서 행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광산구가 지역 발전의 동반자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교환하며 더 나은 구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행 기자



## 함평군의회, 첫 입법·법률 고문 위촉 눈길

전문성·법적 안정성 강화한 의정활동 기반 마련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가 11월 26일 의정실에서 첫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열고,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했다(사진).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범조계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이병주 변호사(범법무법인 이우스)와 최상현 변호사(변호사 최상현 법률사무소)다.

두 고문은 향후 2년간 군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법령 해석, 의안 심

사·처리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

의정실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이 의장은 두 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회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광주 발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기대”

민주당 광주시장, 김민석 총리 광주 방문 환영하며 논평 발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지역현안 해결에 실질적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이 26일 광주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환영하며, 광주의 미래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방문은 광주의 경제 현황과 미래 산업 과제를 직접 확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광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은 광주가 요구할 정당한 책임을 뒷받침한다"면서, "5·18의 역사적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국가는 책임 있는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총리 방문이 광주의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핵심 현안 해결에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광주의 미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장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 민주 신정훈, 내달 8일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전남서 실현하는 게 사명”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사진) 의원이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 주철현(여수갑)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출마 선언으로, 내년 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신 의원은 다음 달 8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직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현 김영록 지사와 맞붙은 바 있는 신 의원은 두 번의 나주시장을 거쳐 19·21·22대 3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당일 출마의 변과



함께 지역 발전 비전 등을 밝힌다.

지난 9월 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이 주인 나라'를 전남에서 실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나라,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수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Jangseong

천년고찰 백양사(쌍계루)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